

민주노총, 26일 총파업 선언

1



민주노총은 14일 열린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4년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2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총파업 찬반투표결과에서 18개 연맹, 15개 지역본부 1700개 노동조합 조합원 589,468명중 투표율 58%, 찬성율 68%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고 밝히고 “모든 조합원은 총연맹의 대의원대회 결정과 총파업 찬반투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할 것. 향후 모든 투쟁은 민주노총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내외의 방해선전이나 탄압에 굴하지 말고 민주노총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행동할 것” 등 투쟁지침 1호를 전달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비정규직 무한정 양산, 공무원 노동3권 불인정, 무분별한 개방 등 노무현 정부는 반노동자·반민중의 노선

을 걷고 있다”며 “이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나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비정규직 노조 대표자연대회의 박대규 의장 직무대행은 “정부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자식들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며 “총파업이 어렵지 않겠냐는 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투쟁하겠으니 정규직 노동자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일요일, 서울의 광화문과 종로는 노동자들로 물결을 이뤘다. 전국에서 올라온 6만여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한일 FTA저지 등을 외치며 다가올 총파업의 결의를 다졌다.

한편 IT연맹(www.itunion.or.kr)은 본대회 전 총파업승리를 위한 IT연맹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비정규 보호입법 쟁취 ▲한일FTA·한미BIT 체결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직권중재 폐지 등 노동기본권 및 노동 개혁입법 쟁취 ▲공무원 노동3권 완전보장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저지 ▲미군기지 이전비용 재협상 및 평택이전 저지 ▲정보화촉진기금 폐지 등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기금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재식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며 “IMF당시 구조조정이 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낳고 비정규직을 양산

했듯이 파견법이 개악될 경우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IT연맹이 앞장서 투쟁할 것을 당부했다.

KT노동조합은 전국상집간부와 지부·분회장 등 400여 대오가 연맹결의대회와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에 참가했다.

정부의 '공무원 노조법안' 의 문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불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실행하고 있지 않는데 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지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8월25일 열린우리당과 협의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헌법과 관련 법률에 어긋나게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가 밝힌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이다.

· **제5조(노조설립)**= 설립시 국회, 행정부, 광역시 등 각 자치구와 단위를 설정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결형태와 선택은 자주적 단결권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단위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단결권 침해다.

· **제6조(가입범위)**= 6급 이하로 나눠 적용하되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입을 금지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단결권은 차별 없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노조의 설립 및 조직형태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IL0 제87호 조약에 위반된다. 결국 직급으로 제한하고

업무와 역할로 다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단결권에 대한 편의적 접근이다.

· **제7조(노조 전임자의 지위)**= 노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고 보수지급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임자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길 사항으로 어떠한 설정 자체가 부당하다.

·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하지만 교섭대상은 획일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근무조건,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공직사회의 민주화에 관한 요구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제9조(교섭의 절차)**=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원노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사자율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강제성이 개입돼 교섭을 마비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의 단협을 체결해도 법령 등에 의해 효력이 부인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결국 단협의 효력이 법령과 위배되지 않게 하되 위배시 단협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꼭 필요한 경우 제한돼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정신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

· **제12조(조정신청)**= 조정신청 30일과 당사자간 합의로 30을 또 두고 있고 직권중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경우 공익사업에 비추어 15일로 단축하는 게 형평에 맞다. 직권중재의 경우도 이미 나타난 피해에 비춰 폐지해야 한다.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니온숍을 공무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제도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 권 보장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로써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 3 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부당노동행위 주체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가 되며,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란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함(법 제 2 조제 2 호)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법 제 81 조(아래참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법 제 90 조의 규정(제 81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81	1	-	가	가
			가	
5		-	가	가
			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 개선.유지 기타 근로

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행위 및 기타 관련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는 당해 노동관계의 전체적인 상황, 근로자 및 사용자측의 태도, 불이익 취급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사항과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가 지나친 것이라면 불이익 취급에 해당된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포함된 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 한 것으로 일종의 보복적 차별대우를 금지한 것이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불이익 취급 유형**으로는 신분적 불이익 (해고, 퇴직 강요, 전근.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명령, 대기명령, 복직거부 등)과 경제적 불이익 (차별적 승급.강등,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수입 감소조치 등) 정신적 불이익 (취업거부, 정직, 시달서 요구, 견책, 복리후생 시설의 차별대우 등)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노동조합 활동방해,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 선출기반 박탈, 승진 등)등이 해당된다.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에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간에 원인.결과의 관계만 있다는 사실만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면 된다.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에 해당되며, 조합활동을 저지.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임원을 영전시키는 행위는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될 수 있다.

4주간 KTTU



오는 11월 22일부터 지방본부별 노사합동토론회가 12개 지방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노사합동토론회는 지난 5월 개최된 노사대토론회에서 노동조합이 토론회의 정례화를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기존 교섭의 틀을 벗어나 노사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대집행부의 중심기조인 정책적 대안을 가진 노동조합의 상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향후 노사토론회문화의 온전한 정착과 노사가 KT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대안을 찾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다.

끝으로 노동조합 각 지방본부는 합동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현실정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11 22 ()			14:00
11 23 ()			15:00
			14:00
11 24 ()			14:00
			14:00
			14:00
11 25 ()			16:00

11 26 ()			15:00
			15:00
11 29 ()			14:00
			16:00
11 30 ()			14:00



어느덧 가을은 깊어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 옷 깃을 여며야 하는 겨울이 눈앞에 와 있다. 여름이면 피서보다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가을이면 즐거운 단풍놀이보다는 행락객들의 안전사고가 먼저 염려가 되고,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부터는 각종 화재 및 빙판 등 동계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왔다.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고질적인 한국인의 망각병으로 인해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형 안전사고들에 대한 기억은 벌써 머릿속에서 아득히 잊히고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는 듯이 무심한 안일에 빠져있다.

항상 그랬듯이 어느 날 갑자기 또 큰 사고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발집을 쭈셔 놓은 듯 온통 아단일 것이다.

당국은 당국대로 여론의 질타와 사고수습에 진땀을 뺐 것이고, 언론은 사고가 발생하면 조금이라도 타 언론에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있는 문제 없는 문

제 다 들추어내어 가뜩이나 불안해진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 이고, 시민들 또한 안전한 사회의 근본은 개인의 안전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기본원칙과 결여되어 있는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은 모르고 오로지 남의 탓만 할 것이다.

사회의 안전은 개인의 안전에서부터 시작한다.

개인의 안전이 가정의 안전이 되고 직장의 안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가 정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소에 회사나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안전 불안요소들을 살펴 보고 문제점을 제기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시스템 가동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고란 정확히 예고된 사고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그 원인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하는 인재라는 것이다. 그 인재는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과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위기관리시스템의 미비가 근본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설마 하는 사이에 사고는 순식간에 다가온다.

사고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개인 내 가정 내 직장부터 둘러보자. 자신의 안전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안전 불안요소는 없는가? 가정과 직장의 안전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지고 가동되고 있는가? 미리미리 점검해보고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 안전을 생활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자.

평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형사고는 법과 제도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있는 안전의식이 갖추어질 때 대형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면서 따뜻하고 안전한 월동기를 보

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출처:노동조합 게시판 2004-11-15]

정보화촉진기금이 당초목적과 달리 잘못 운용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폐지는 정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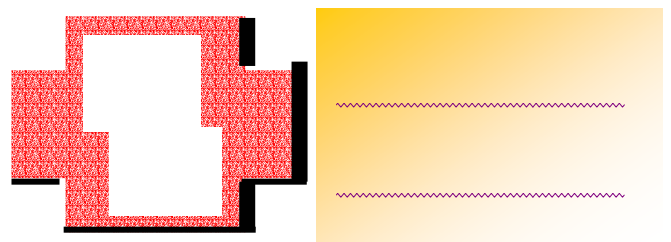
통신환경이 좋았고 경쟁도 심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잘나가던 시절에서의 기금조성은 이해가 가지만, 정통부 자기네들이 통신환경을 전 세계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경영환경으로 완전히 엉망,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고 현재 어려운 통신기업체로부터 기금을 계속 걷는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향후 남아있는 기금이 기간통신사업에 투자되고 정상운영이 될수 있도록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일 험도 없는 정통부는 옆에 다른 부를 본받을줄 알아야 한다.

얼마나 자기네 부 관련기업들을 챙겨주는가를... KT는 이제 힘있게 챙겨주는 [산업자원부]소속으로 들어갈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도와주지않는 공공연맹탈퇴 했듯이

안챙겨주는 정통부 탈퇴하여 산자부로 들어가자!



[출처: 파란 건강상식]

겨울이 다가오면 손꼽아 기다려지는 눈. 하지만 내 어깨엔 항상 새하얀 눈이 내린다?. 바로 비듬이다.

비듬은 머리를 안 감거나 너무 자주 감아도 생긴다. 비듬은 무엇이고, 왜 건조 한 계절에 더 심해지는지, 비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조한 겨울철 올바른 두피관리 요령을 전문의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 비듬, 머리를 안 감거나 너무 자주 감아도 생긴다? 두 가지 모두 맞는 말이다. 머리를 감거나 너무 자주 감아도 비듬이 생길 수 있다.

비듬이란 두피의 각질층 세포가 쌀겨 모양으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정상인도 머리를 수일간 감지 않으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머리를 하루에 한번 이상 감는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양의 비듬이 떨어지거나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질환으로 의심해봐야 한다.

비듬이 생기고 붉은 발진 때문에 가렵고 아픈 증상이 있다면 '지루피부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두피에 피지 분비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머리에 땀과 먼지가 잘 달라붙는데 비듬의 조각이 크면서 누르고 끈적끈적하다.

손톱으로 두피를 긁게되면 피와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는 현상이 반복되며, 상처에 균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루피부염은 정신적인 요인이 작용 하며, 스트레스나 몸의 상태, 때로는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같은 지성 비듬은 머리를 자주 감는 것이 좋다. 순한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아주고 2~3일에 한 번쯤은 비듬 샴푸를 사용한다.

머리를 감을 때는 두피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며, 샴푸 후엔 빠른 시간 내에 물기를 말려준다.

특히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한다.

■ 겨울철에 비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날씨가 차가워지고 대기의 습도가 낮아져 건조해지면,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 비듬이 생기기 쉽다.

주로 두피가 건조해서 생기는 건성 비듬이 많으며, 입자가 곱고 하얀게 특징이다.

건성 비듬은 머리를 너무 자주 감아 두피의 피지를 지나치게 제거하거나 깨끗하게 헹구지 않아 두피가 자극을 받는 경우 생기기 쉽다. 또 지나친 헤어 드라이어 사용도 원인이 된다.

건성 비듬은 두피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일이나 크림을 발라 두피 마사지를 자주 해주고, 헤어 드라이어나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자제 해야 한다.

평소 비듬과 가려움을 방지해 주는 전용 샴푸를 사용하되, 샴푸의 잔여 물이 두피에 남지 않도록 잘 헹궈야 한다.

■ 올바른 두피관리법 올바른 두피관리의 첫 걸음은 모발과 두피를 항상 청결히 하는 것이다. 두피를 자극하는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제때 풀어주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해조류 및 녹차, 채소처럼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가

[출처:파란 주말여행]

용유도는 서울에서 가까워서 좋고, 가는 길 또한 막힘이 없어 좋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 코스로 딱 좋다. 섬은 섬이로되 승용차를 타고 시종 달릴 수 있는 섬이다.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서울과 영종도는 다리가 놓였고 다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도 방파제를 이어 긴 해안도로 서로의 혈액을 잇고 있다.

용유도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고즈넉한 섬이었다. 용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양새를 하고 있어 용유도라 부른다. 실제 항공 사진을 보면 영종도에서 바다를 향해 용이 꿈틀대며 승천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용유도이다.

구한말 운양호사건과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발자취를 읽을 수 있는 충훈탑, 독립만세 기념비 등이 남아 있기도 하다. 용유도는 지형이 산골짜기처럼 패여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골짜기 모양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구릉지가 연결되어 있다.

시골 언덕배기정도의 높이에 채소를 가꾸는 밭이 있고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나무 군락이 있다. 남서쪽 해안은 백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갯벌과 섞이어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질편하지도 않는 중용의 바다 정신을 지니고 있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대화하며 사색할 수 있는 한적함 이런 해변의 정취를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용유도 해변으로 가지 말고 용유도 초입에서 왼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조용한

거장포 해변을 가보아야 한다.

무의도와 실미도를 갈 때 이곳을 거쳐 선착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용유도를 찾는 이 보다는 무의도로 오고 가면서 이 해변을 만나게 돼 쉽게 놓이는 경우가 많다.

거장포 해변은 용유도에 속하는 데 완만한 해변을 따라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아주 한적한 해변이다. 가족끼리 마주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노을을 구경하는 맛도 일품이고 방파제를 타고 무의도에서 나오는 사람과 승용차 행렬을 바라보는 일도 이색적인 구경거리이다.

병풍처럼 둘러 퍼진 해송 숲에서 조개구이를 맛보며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맨손으로 놓어와 송어를 잡을 수 있는 한 그물 고기잡이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그해 여름 무의도와 실미도를 다녀오면서 이곳에서 숯불에 조개를 구우며 노을을 감상한 적이 있다.

노을 속에 갈매기들이 하루의 모든 것을 훌훌 털며 살풀이춤을 추고 있었다. 그렇게 붉게 바다를 채색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잔하면서 감동적이었다. 물새와 파도가 노을에 섞이어 살아파닥이는 모습이 비장하기까지 했다. 그 때 그곳에서 이런 시를 썼다.

거장포 해변에서 조개를 굽는다 뒤집어져 굳게 입 다문 조개가 아가리를 벌린 것은 오랜 침묵을 두 동강 낸 참나무 숯불 때문이었다.

이녁을 태워 조개의 마음을 읽어간 숯불이 제 속 다 태운 후에 조개는 비로소 속살을 열었다 속살 구워내고 껍질을 버리면서 내가 버려야 할 껍데기 하 많으랴 나 한번쯤 먼저 마음 연 날 얼마이랴 매운 연기 휘젓는 파도 소리를 따라가니 노을에 젖어들고 있다.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노을 속에 온몸 태워 빨려 들어가던 저 파도소리 비워야 할 때

비율 줄 알고 미세한 생애까지 최후까지 물보라 치던 파도소리가 내 눈빛 수없이 감아 돌리며 젖어간다 이 바다, 갯바람 풀무질에 뽀글게 씻물 튀고 있다 -(박상건, '거잠포에서 조개를 구으며' 전문)

그렇게 한 구절의 시를 메모하여 젓갈을 우리듯 생각이 익을 때까지 수첩에 적어 놓고는 다시 큰 길로 나와 좌회전하여 용유도 을왕리 해변으로 향했다. 해변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왼쪽 방향이 선녀바위로 가는 길이다.

이곳은 잠진도 보다 더욱 고요한 해변이다. 해변의 사색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가볼 필요가 있다. 낚시터로도 각광받고 있다.

누구나 시인이 되는 아름다운 포구와 바닷가 풍경 을왕리는 선녀바위 길목에서 볼 때 오른쪽 방향이다. 영종도에서 볼 때는 직진 방향이다. 이정표가 있음으로 크게 헛갈리지는 않을 것이다. 소나무 숲을 지나면서 초등학교 분교가 나오고 바로 바다를 낀 수많은 횃집거리가 등장한다. 이곳이 을왕리 해수욕장이다.

을왕리는 용유도 중심 해변이다. 썰물 때 폭 200m의 넓은 모래밭이 펼쳐진다. 도시의 방랑자들이 이 백사장을 해방구 삼아 모처럼 기지개를 활짝 펴고 함성을 내지른다.

특 트인 바다의 풍경에 빠져 모처럼 자연 속에 동화되어 간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베어토벤이고 슈베르트이며 키이츠이고 하이네이다. 갯바람이 세지 않고 수심이 야트막해 파도가 높지 않고 잔잔하게 다가선다.

어느 어촌의 풍경처럼 뽀밭에는 조개가 있고 망둥어가 뜬다. 녹슨 닳들이 처박혀 있고 방파제 쪽에 목선 몇 척 그리고 깃발이 휘날린다. 이 바다에서 보는 낙조가 장관이다.

잠진도에서는 시계방향으로 2~3시 방향에서 노을이 떨어지지만, 이곳에서 12시 방향 그러

니까 정면에서 노을의 대단원이 연출된다. 노을이 지는 그 사이에 문득, 스위스 알프스 초원에서 길게 불어 대던 알프호른의 연주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주말이면 다소 북적이던 이 바다에서 노을이 연출해 내는 잔잔한 분위기를 잊을 수 없다. 다시 용유도 오른쪽 끝에 섬모퉁이가 있다. 절벽 위에 아담한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다. 그곳이 큰 장군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장군 바위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용유도의 수호신으로 부르고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있으면서 아직 천연의 해변을 간직하고 있는 용유도에는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공항 직원들이 숙식하며 출퇴근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엠티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섬치고는 대중교통편도 괜찮은 곳이다. 그래서 야영장,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섬이다. 지난 86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매년 8월께 해양축제가 열린다.

주말 단위로 가족단위 여행은 물론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사랑받는 섬임에는 분명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국내 최초 해상관광호텔이 들어서고 카지노호텔, 위락단지,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전해진 가운데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세상사 날로 변모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갈수록 인산인해를 이루다보면 천연의 갯내음은 서서히 사라질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더더욱 어촌다운 이 해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챙겨두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을왕리 언덕을 넘어서면 또 하나의 해변, 왕

산해수욕장이 나온다. 아주 한적한 바닷가이다. 정겨운 포구를 낀 작은 어촌의 모습이 풍경화로 다가선다.

조개 굽는 내음에 깊어가는 노을과 파도소리 우리 가족 일행은 포구의 맨 끝자락에 있는 조개 구이집에서 조개를 구웠다. 마을 공동체에서 비닐하우스를 쳐서 시작한 이곳은 지금은 멋진 하우스로 변신해 있었다. 기름 드럼통을 개조해 장작더미를 지폈다. 타닥, 탁탁 장작 타는 소리가 좋았다. 살다보면 멧힌 답답함들, 그런 웅이들이 불꽃으로 튀어 허공으로 터져 오르곤 했다.

저마다 웅기종기 모여앉아 그렇게 조개를 구우며 사랑과 우정, 가족애를 나누는 모습들이 정겹기만 했다.

어쩔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순간만은 자연의 존귀함과 고마움에 푹 빠져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모두가 장작의 불꽃 속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사랑과 꿈과 희망을 영혼의 불꽃을 피워 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용유도의 저녁은 저물어갔고 조개 굽는 냄새는 연기로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연기는 노을 속으로 나부끼고 포구의 어둠에 섞여 가고 있었다.

미니상식/바지락에 대하여 조개 맛에 푹 빠진 나머지 집에서 먹을 바지락을 사오는 경우가 많다.

갯사람들이 ‘바지락’ 이라고 부르는 이 조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조개이다. 모래나 진흙이 섞인 곳에서 산다. 어린 조개일수록 부풀어 오른 정도가 약하다.

번식기에는 생으로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 시기에 여러 노폐물에 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산란기는 4~7월이다.

그래서 여름에는 데쳐 먹고 겨울에는 생으로 먹는 편이다.

국을 끓이기 전에는 하룻밤 정도는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담가두어야 한다.

바지락이 입을 벌려 자기가 먹은 음식 노폐물, 펄, 모래 등을 토해내기 때문이다.

바지락에는 타우린, 글리산, 알라닌 등이 많아 시원한 맛을 낸다. 그래서 술꾼들이 좋아하는 편이다.

예로부터 간이 약해 쉬 피로해하고 황달기가 있는 사람에게 바지락은 간의 특효약으로 통했다.

자연산과 함께 양식이 쉬워 최근에는 연안에서 많이 양식하기도 한다. 수출용 통조림 원료로도 각광받고 있다.

서해안 그리고 사할린섬, 일본, 중국, 타이완 등지에 널리 분포한다.

용유도로 가는 길 1. 대중교통 ① 인천공항 리무진(무의도/실미도/을왕리해수욕장 연계버스) ② 인천역 앞 광장→버스이용→월미도 선착장→영종도행 여객선(10분소요) ③ 용유도행 버스(2, 15, 23, 45, 51, 101, 550번 소요시간 50분) ④ 선녀바위해변은 을왕해수욕장 입구에서 하차, 좌회전하여 도보(15분소요)

2. 승용차 ① 서울 올림픽대로(김포공항 방면)→방화대교→인천국제공항→영종대교→용유, 무의도 이정표→용유도 ② 서울 방화대교→노오지 I.C→북인천 I.C→잠진도선착장→용유도 ③ 경인고속도로 중점→인천항 사거리(우회전)→월미도 제2선착장→영종도행 여객선(승용차 적재 가능. 소요시간 15분)→영종도 선착장→해안선 도로→용유도 ④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영종도→용유도 방향으로 직진

3. 교통 문의 용유동사무소 032-886-3612/용주해운) 032-762-8880~2/용일여객 032-886-6321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